

#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 내달 7일 개막

## ‘재난과 인권: 새로운 사회계약’ 주제로 DJ센터서 미얀마 사태 비롯 장애·노인·난민 8개 분야 논의

광주시는 오는 10월7일부터 1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재난과 인권: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한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여러 재난으로 인류에게 닥친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고, 인권도시가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올해 포럼은 광주시, 유네스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광주시교육청, 한국국제협력단 등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국제교류센터와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가 함께 주관한다.

포럼 개최식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최초로 축하메시지를 전하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

본부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한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오드리 아즐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기조발제를 한다.

현재까지 참여가 확정된 해외 주요 인사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오드리 아즐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에밀리아 사이즈 세계지방정부연합 사무총장,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장, 노르웨이 베르겐 시장,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시장, 케냐 나이로비시장 등이 있다.

프로그램은 공식행사, 전체회의,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킹회의, 인권교육회의, 연계행사 등 8개 분야 55개로 지난

해에 비해 유네스코 연계행사 및 사전포럼 등 20개가 확대돼 운영될 계획이다.

행사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회의에서는 재난 위기 속 각 지방정부가 시행한 인권정책을 공유하고 행동지향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토의할 예정이다.

또 미얀마 특별회의에서는 지난 4월 실시시간으로 열린 유엔인권최고대표와의 화상회의에 이어 다시 미얀마 사태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회의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과 함께 장애, 노인, 난민 등 8개 분야에 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제안된 과제들이

추진되기 위한 이행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기초자치단체가 한데 모여 구성된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포럼에 함께해 인권문화를 지역사회 내에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개회식 하루 전인 10월6일에 진행되는 사전포럼에는 지역 내 활동하는 내·외국인 전문 음악인이 참여하는 개막공연 ‘사람X사람’을 시작으로 총 9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마련됐다.

이외에도 법무부-지방정부간의 협의체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 특별회의,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글로벌 이

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청년 토크(TALK), 아시아 지역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 총 50여개의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세션들이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으로 현장 정중 없이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개최된다.

윤목현 시민인권평화국장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포럼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세계 대표적인 유엔기구인 유네스코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년 연속으로 포럼을 공동 주최한다는 것은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위상과 성과를 세계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광주시가 인권도시의 중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포럼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추석명절 부패근절 캠페인. 광주시 서구는 13일 오전 구청 로비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부패행위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 /서구 제공

## “문화전당장 직급·인력 규모 등 실망”

### 광주문화단체, 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겸직 비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상화 시민연대 등 광주지역 문화시민단체는 13일 자료를 내고 “정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직규모를 122명, 전당장 직급을 고위 공무원 나급으로 정하고 입법예고 했다”며 “지역 사회가 요구한 ‘가급’ 이상, 300여명 인력에 모자라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14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

서 의결되면 아특별 개정안 국회통과 이후 정부의 핵심 후속조치는 마무리된다”며 “아특별 개정안 국회통과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는 아쉽지만 문화전당이 활성화되면 문화전당장 직급과 인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문화시민단체는 그동안 문화전당장 직급 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통합 문화전당과 신설되는 문화전당재단 포함 인원 300명을 요구해 왔다.

단체는 “우리가 정부의 후속조치 과정의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 못지않게 주목한 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위상 강화였다”며 “하지만 정부는 지역문화정책과장이 아문단장을 겸직

하도록 규정해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아문단장 겸직 방침은 개정된 아특별 개정안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문화전당을 제외한 나머지 조성사업 역점 과제의 포기 선언이나 다른 없다. 아문단의 위상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문화전당으로 일원화되고 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이 신설되는 가운데 신임 문화전당장은 개방형으로 뽑는다.

문화전당에는 7개 과가 신설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문단장은 문화부 지역문화정책과장(3급)이 겸직한다.

## GGM 현 체제 유지... 후임자 찾기 난항

### 이 시장 “노사상생·캐스퍼 성공·친환경차 전환” 과제로 꼽아

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도 노사상생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없이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사진)은 13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오는 19일 현 박광태 대표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16일 주주총회를 열어 차기 대표를 선임할 계획이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주주는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 ▲자동차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인물 ▲노동계를 포용하고, 지역 사회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 ▲위탁업체인 현대차(2대 주주)와 주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3대 원칙으로 삼아 적임자 찾기에 나섰다. 그러나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국내 완성차업체와 관련 법안 대표 등을 중심으로 적격자 물색이 진행되고, 시장이 직접 접촉하거나 유증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에게 추천도 의뢰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이 시장은 “상법 386조 1항에 따라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현 대표이사가 후임자 결정시까지 계속 대표직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며 “과도기 체제가 오래 가지 않도록 (차기 대표이사를)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GGM 대표이사는 박광태 전 시장 체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인선이 계속 늦춰질 경우 내년 2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 시장을 선임할 수 밖에 없어, 현 박 시장과 박광식 부시장 체제는 최장 6개월 가량 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GGM 대표이사의 임기는 정관상 2년으로, 주주간 협약으로 1대 주주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이 지명권을 가지고 있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이 시장은 “본격 양산체제에 돌입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1단계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시작은 지금부터”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 상생 문화의 확산, 캐스퍼 품질에 대한 대외적 인정, 시기를 놓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 생산체제로 전환 등 세 가지를 성공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이해관계가 다른 노사 합의안 도출, 성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본금 2,00억원과 차입금 3,545억원을 확보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고 꼽기도 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GGM) 하나만으로 직접 일자리 1,000개, 간접 일자리 1만개가 늘어나지만 이 건 마중물이다”며 “사업이 성공하면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광주에서 전국으로, 자동차에서 전 산업으로 확산해 광주가 시대를 선도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광주복지연구원 초대원장에 김만수씨 임명

광주시는 13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재)광주복지연구원 초대원장으로 김만수 전 동신대학교 보건복지대학장(사진)을 임명했다.

김 원장은 임용장을 받고 곧바로 공식 업무에 들어가 임기 3년의 원장직을 시작했다.

김 원장은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동신대학교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34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에 매진해왔다.

김만수 초대원장은 “정의롭고 따뜻한 광주공동체를 만드는 데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복지재단에서 복지연구원으로 탈바꿈한 취지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고, 빛고을·효령 양 타운 또한 지역복지정책의 테스트베드(Test-bed)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우리시의 복지 정책기본방향은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일 자리를,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맞춤형 돌봄 혜택을 드리는 것이다”며 “광주복지연구원이 혁신과 도약을 통해 지역복지정책 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 조속히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 인: 062-720-1016, 1017  
☎ 팩: 062-720-1020  
✉ 이메일: jnm1000@hanmail.net

완도군 공고 제2021-783호  
**완도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완도군 완도를 축형·장차리 일원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9. 14.  
**완도군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개요  
가. 위치: 완도군 완도를 축형·장차리 일원  
나. 면적: 73,585㎡  
다. 내용: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 군계획시설 1개 노선 신설
2. 주민공람 내용 및 열람장소  
가. 공람내용  
○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관계도시: 계제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나. 공람기간: 2021. 09. 14 ~ 2021. 09. 30일(16일간)  
다. 공람장소: 완도군청(지역개발과, 문화예술과), 완도읍사무소
3.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공람기간 내  
나. 제출장소: 완도군청(지역개발과, 문화예술과), 완도읍사무소  
다.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 양식에 따라 서면 제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문화예술과 담당(061-550-54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개인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인·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정사적 면의 법원사 준수 시간적 효율

▶ 시사온 상담 ◀

호남지사 062-417-4717 / 010-4675-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질병관리청**

봄바람, 코골을 간질여도  
머리 두기를 합니다  
기다렸던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마스크를 씹니다

#우린 #방역에진심인편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병성 302-0316-649511